고진영·임성재 '10월의 어느 멋진 날'

고진영

KLPGA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3언더파 285타 우승 국내대회 통산 10승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20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 우승을 차지했다.

고진영은 13일 경기도 여주 블루헤런 동서코스(파72·673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와 보기를 1개씩 맞바꾸며 이븐파 72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3언더파 285타의 성적을 낸 고진영은 2017년 9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이후 2년 1개월 만에 KLPGA 투어 대회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우승 상금은 2억원이다.

고진영은 2017년 10월 인천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도 정상에 올랐지만 이 대회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로 진행됐다.

이번 우승으로 고진영은 KLPGA 투어 통산 10승을 채웠다. 그는 미국 LPGA 투어에서는 6승을 기록 중이다.

고진영은 이날 경기 막판까지 이소미, 유해란과 함께 3언더파로 공동 선두를 달렸다.

특히 고진영은 15번 홀(파4)에서 약 5m 버디 퍼트가 홀 바로 앞에서 멈춰 서며 아쉬워했다. 16, 17번 홀에서도 연달아 버디 퍼트가 홀 좌우로 살짝 비켜 가며 좀처럼 3언더파에서 타수를 더 줄이지 못했다.

그러나 우승 경쟁을 벌인 다른 선수들 역시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타수를 잃으면서 고진영이 자연스럽게 단독 1위로 올라섰다.

이날 4번 홀(파5)에서 유일한 버디를 잡은 고진영은 후반 9개 홀에서는 11번 홀(파3) 보기만 1개를 기록하고도 공동 선두에서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1타 차 선두로 18번 홀을 시작한 고진영은 이 홀을 파로 마치면서 2016년 이후 3년 만에 후원사 대회인 하이트 진로 챔피언십 패권을 탈환했다.

고진영은 올해 LPGA 투어에서 3월 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 4월 ANA 인스퍼레이션, 7월 에비앙 챔피언십, 8월 캐나다 퍼시픽오픈에서 우승했고, 이번 대회에서 올해 자신의 다섯 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잡은 최혜진이 나희원, 이소미, 김지영과 함께 최종합계 2언더파 286타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올해 신인상 부문 선두 조아연은 1언더파 287타로 공동 6위에 올랐고, 세계 랭킹 2위 박성현은 7오버파 295타 공동 34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임성재

KPGA 제네시스 챔피언십 3R까지 7타 뒤진 5위서 4R 5언더파 대역전 우승

2018-2019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신인왕 임성재(21)가 '대역전 드라마'를 쓰며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대회에서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다.

임성재는 13일 인천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파72·7434야드)에서 열린 제네시스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2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쳤다.

3라운드까지 선두 문경준(37)에 7타 뒤진 공동 5위(1언더파 215타)였던 임성재는 최종합계 6언더파 282타로, 공동 2위 문경준, 권성열(33·이상 4언더파 284타)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2015년 프로로 전향해 이듬해 국내 1부 투어인 코리안투어에 진입한 임성재는 일본 투어를 병행했으나 두 곳 모두 이전까진 우승 경험이 없었다.

국내외를 통틀어 '1부 투어'의 첫 우승을 신고한 임성재는 상금 3억원과 제네시스 세단 1대를 챙겼다.

2위에 5타 차 선두로 출발한 문경준은 초반부터 크게 흔들리며 분위기는 임성재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문경준이 2번 홀, 4번 홀(이상 파4)에서 연이은 보기로 주춤한 사이 임성재는 4~5번 홀 연속 버디를 앞세워 3타 차 추격에 나선 뒤 한 타 차까지 몰아붙였다. 12번 홀(파4)에선 두 번째 샷을 홀 1m 남짓에 붙여 맞이한 버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동 선두를 꿰찼다.

문경준은 선두 사수 의지를 불태웠지만, 임성재는 14번 홀(파4) 티샷을 그린에 올린 뒤 투 퍼트 버디로 기세를 이어가며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위태롭던 문경준은 13번 홀(파3) 보기를 적어내 결국 임성재에게 단독 선두를 허용했다.

16번 홀(파4) 임성재의 보기로 다시 공동 선두가 된 승부는 18번 홀(파5) 임성재의 버디로 갈렸다.

드라이버 티샷이 330야드를 날아가 페어웨이에 안착했고, 6번 아이언으로 두 번째 샷을 해 그린을 살짝 넘긴 임성재는 웨지 샷을 홀 2m에 붙인 뒤 버디를 낚아 승기를 잡았다.

임성재가 한 타 차 선두로 먼저 경기를 마친 뒤 맞이한 마지막 홀에서 문경준은 파 퍼트마저 빗나가며 2타 차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그러나 그는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 4126점을 쌓아 대상 수상을 확정 지었다.

/연합뉴스

'KIA 재편' 답답 행보 어수선한 마무리 캠프

오늘부터 함평서 마무리 훈련 코치진·선수 교체 소문 무성 내년 시즌 성적 악영향 우려

'호랑이 군단'의 어색한 동행이 시작된다.

KIA타이거즈가 14일 함평 챌린저스필드에서 2019 마무리캠프를 시작한다. 이번 훈련은 내달 17일까지 35일간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진행된다.

캠프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A와 B조로 나눠 훈련하며, 재활군은 광주에서 재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FA 신분이 된 김선빈, 안치홍을 비롯한 '최고참' 김주찬, 최형우, 나지완 등 회복조는 개인 훈련을 하며 내년 시즌을 준비한다.

'에이스' 양현종과 '마무리' 문경찬은 지난 10일부터 2019 프리미어12 대표팀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첫 훈련이 진행되는 14일에는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까지 100여 명이 넘는 대규모의 선수단이 함평 챌린저스 필드를 찾게 된다.

한 시즌을 돌아보고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시작점이지만, 마무리캠프를 앞둔 KIA 선수단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아있다.

지난 5월 김기태 감독이 자진사퇴했지만 아직도 KIA의 차기 감독은 확정되지 않았다. 박흥식 감독 대행 체제로 치러진 2019시즌이 끝난 지도 이미 2주가 넘었지만, 조계현 단장은 2020시즌을 위한 어떤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령탑도 정하지 못했고, 새 시즌을 위한 선수단 재정비 작업도 답보 상태다.

시즌이 끝난 뒤 KIA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코치진 교체와 선수단 정리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빠르게 팀을 정비하고 새 시즌을 준비하는 다른 팀들과 달리 KIA는 조용히 마무리캠프에 돌입한다.

문제는 캠프에 참가하는 코치진과 일부 선수들의 신변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감독 선임에 결과에 따라서 변화의 폭은 달라지겠지만 '재계약 불발'에 따른 이탈자가 대거 발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부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다른 팀들이 빠르게 새로운 코치진 구성을 하고 있는 만큼 내년 시즌 거취가 불확실한 코치들은 애가 탄다.

선수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KIA는 지난달 18일 서동욱, 김주형, 박경태 등 세 명의 선수를 웨이버 공시했다. 이후 소문만 무성한 채 방출 선수 명단은 나오지 않았다.

당연히 소문 당사자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캠프에 임하면서 훈련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캠프 중반 또는 직후 방출자가 나올 경우 전체적인 선수단 분위기에도 악영향이 가게 된다.

감독은 현장을 움직이는 책임자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선수단과 소통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팀을 만들어 가는 것은 구단의 몫이고 책임이다.

성과 없는 조계현 단장의 답답한 행보에 2020시즌을 향한 KIA의 걸음도 더뎌지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일·무등리그 20일 결승 진출 놓고 대격돌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에프나인 2년 연속 4강 진출

◇무등기 5주 차 경기 전적
■광일리그 8강전
◆1경기(6회 시간 제한승)
카이로스 0 2 0 0 0 4 - 6
저스티스 0 0 0 0 0 0 - 0
▲승리투수 : 임홍서
◆2경기(6회 시간 제한승)
에프나인 1 1 2 0 1 5 - 10
레드워리어스 0 0 6 0 0 0 -6
▲승리투수 : 탁홍석
◆3경기
무등산생태요양병원 4 0 0 1 4 - 9
어벤져스 0 0 0 0 1 - 1
▲승리투수 : 이범석
◆4경기
파트너스 5 2 0 1 1 - 9
광주레인보우 0 0 0 0 0 - 0
▲승리투수 : 김영복 ▲홈런 : 김길오(1회 그라운드 홈런·파트너스)

13일 광주 북구 광주일고 야구장에서 열린 제9회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사회인야구대회 광일리그 카이로스와 저스티스의 8강전에서 카이로스가 2-0으로 앞선 6회초 무사 1루 임형규 타석 때 1루 주자 김용수가 도루에 성공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무등리그에 이어 광일리그 4강 팀이 확정됐다.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는 제9회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5주 차 경기가 광주일고 야구장에서 열렸다. 무등리그에 이어 광일리그 8강전이 전개되면서 대회 준결승 진출팀이 모두 가려졌다.

광일리그에서는 카이로스, 에프나인, 무등산생태요양병원, 파트너스가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다.

카이로스는 선발 임홍서의 5이닝 무실점 호투를 앞세워 저스티스를 6-0, 영봉승으로 꺾었다.

0-0으로 맞선 2회 카이로스가 먼저 2점을 뽑으면서 분위기를 가져왔다. 임홍서의 호투로 2점의 리드를 이어가던 카이로스는 6회 4점을 한 번에 보태면서 승리를 확정했다. 타석에서는 3번 타자 유진우가 3안타의 활약을 하면서 카이로스의 승리를 이끌었다.

지난해 준우승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에프나인의 우승 도전도 계속된다. 에프나인은 레드워리워스와의 경기에서 10-6 승리를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1회 조영오의 그라운드 홈런으로 선취점을 만든 에프나인은 4-0으로 앞선 3회말 레드워리어스에 대거 6실점하면서 리드를 내줬다. 하지만 5회 5-6까지 추격한 에프나인은 6회 5점을 만들며 승자가 됐다. 조영오가 홈런 포함 3안타를 터트리면서 활약했다.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은 어벤져스를 9-1로 제압하고 4강 티켓을 획득했다. 두 팀의 선발이 나란히 완투승과 완투패를 기록했다.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의 이범석은 5이닝을 1실점으로 막으며 완투승을 챙겼다. 이범석은 8개의 탈삼진까지 뽑아내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반면 어벤져스의 투수 신서현도 5이닝을 책임졌지만 상대의 공세에 9실점하면서 완투패로 고개를 숙였다.

파트너스도 5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김영복을 앞세워 광주레인보우에 9-0 대승을 거뒀다.

파트너스가 1회 김길오의 그라운드 홈런 포함 대거 5점을 뽑으면서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2회에도 2점을 만든 파트너스는 3안타를 터트린 4번 타자 박재현을 앞세워 9점을 합작했다. 마운드에는 든든한 선발투수가 있었다. 김영복이 광주레인보우 타선을 완벽 봉쇄하면서 완봉승을 장식했다. 광주레인보우는 2안타의 빈타에 그쳤다. 멀티히트를 기록한 진보선이 팀에서 유일하게 안타를 기록한 타자가 됐다.

한편 오는 20일에는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광일리그 4강전과 함께 원포인트이엔지, 태평법률사무소, 자연환경, END가 맞붙는 무등리그 4강전이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